

스포츠 포커스

부상 털고 '100타점 유격수' 명예회복 나선다

KIA 타이거즈 흥세완



2003년 유격수 최초 100타점 '골든 글러브'

무릎 수술 후 20개월만에 그라운드 복귀

"재능 많은 후배들과 경쟁하니 좋아요"

“회망을 보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2007년 7월29일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 야구장, 삼재학의 2루타 때 홈으로 뛰어들던 KIA의 주자 흥세완이 주저 않았다. 2005년 수술 받았던 오른쪽 무릎이 문제였다. 결국 흥세완은 프로 데뷔 이후 세 번째 수술대에 올랐다.

흥세완이 다시 방향지를 들었다. 그라운드를 떠난 지 1년8개월 만이다.

프로 4년차였던 2003년, 흥세완은 유격수 역대 최초로 100타점 고지를 밟으며 그 해 골든 글러브를 거머쥐었다. 그래서 늘 '100타점 유격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부상'은 흥세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프로 10년차에 접어든 그의 부상일지에는 어느 고참 선수보다 더 많은 부상기록이 빼곡히 적혀있다.

프로에 데뷔한 2000년 경기중 공에 맞아 손목이 골절된 게 시작이었다. 2001년 데뷔 2년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찰지만 무릎과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2002년 디스크, 고막 파열이 부상일지에 새로 올랐다. 야구 인생 최고의 해였던 2003년에도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2005년에는 오른쪽 무릎 때문에 다시 수술대에 누웠다. 그리고 2007년 수술 부위를 다쳐 긴 재활의 길에 올랐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부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늘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경기장에 나서면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프로선수의 심정 아니겠는가? 지금도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출발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해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신음했지만, 흥세완은 늘 경기장에 있었다. 팀 상황때문에 충분한 재활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다시 경기에 뛰어야 하면서 부상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만큼 이번 재활은 어느 때보다 힘든 과정이었고, 그만큼 시간도 더 걸려 지난 시즌 데뷔 후 처음으로 경기에 출루 못했다.

“너무 힘들어 야구를 그만 둘 생각 까지 했었다. 밀하면서 살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야구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TV도 나오지 않는 산에서 홀로 재활을 할 때도 아내가 문자로 경기 상황을 알려줄 정도로 야구 생각이 간절했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도 흘렸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일어난 흥세완은 지난 12월 자비를 들여 강원, 이천과 필리핀으로 훈련을 다녀왔다. 투·포수조를 따라 팔에서 먼저 캠프를 시작하기도 했다. ‘힘들다’는 얘기가 입에 붙을 정도로 호된 훈련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낀 행복이기도 했다

“야구를 한다는 게 너무 즐거웠고, 동료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게 꿈만 같았다. 그동안 감 독님과 코칭스태 프도 바뀐 후, 새로운 후배도 많아 훈련 나갈 때마다 신인이 된 기분이었다. 긴장도 되고, 많은 걸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다.”

달라진 팀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선수들이 스스럼없이 선배들에게 질문도 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이 있다. 패기 넘치고, 재능 많은 후배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이다. 좋은 선수들과 경쟁을 하다보면 나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극한을 받을 정도로 내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말에 많은 힘을 얻은 건 사실이다. 이것저것 조언해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도 얻었다.”

흥세완은 “긍정의 힘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힘들 때, 좋지 않을 때 더 믿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한다.”

“가장 형편이 너무 안 좋아 힘들게 야구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야구 밖에 없었고, 야구가 좋았다. 데뷔전에서 첫 안타에 타점도 올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 신문에 내 이름이 크게 났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야구인생 끝까지 포기 하지 않겠다.”

국가대표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조범현 감독에게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번 전지훈련 인스트럭터로 참가한 일본 야구의 대가 마츠바라에게는 ‘훌륭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다.

“극한을 받을 정도로 내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말에 많은 힘을 얻은 건 사실이다. 이것저것 조언해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도 얻었다.”

흥세완은 “긍정의 힘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힘들 때, 좋지 않을 때 더 믿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한다.”

“가장 형편이 너무 안 좋아 힘들게 야구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야구 밖에 없었고, 야구가 좋았다. 데뷔전에서 첫 안타에 타점도 올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 신문에 내 이름이 크게 났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야구인생 끝까지 포기 하지 않겠다.”

국가대표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조범현 감독에게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번 전지훈련 인스트럭터로 참가한 일본 야구의 대가 마츠바라에게는 ‘훌륭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다.

“극한을 받을 정도로 내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말에 많은 힘을 얻은 건 사실이다. 이것저것 조언해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감도 얻었다.”

흥세완은 “긍정의 힘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힘들 때, 좋지 않을 때 더 믿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한다.”

“가장 형편이 너무 안 좋아 힘들게 야구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야구 밖에 없었고, 야구가 좋았다. 데뷔전에서 첫 안타에 타점도 올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 신문에 내 이름이 크게 났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흘리셨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야구인생 끝까지 포기 하지 않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익경 및 경제행정학과 특례/남·여 순경 공개 경 찰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p>※합격시스템</p> <p>6개월과정 •27개월 완성 3회 빈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교재 25% D/C</p>	<p>1년과정 •2개월 완성 6회 빈복 학습 •영어 기본이 인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50% D/C 교재 25% D/C</p>	<p>순경공채</p> <p>남·1차: 886명 2차: 214명 여·1차: 40명 2차: 47명 •101단·1차: 120명 2차: 120명</p>	<p>특 제</p> <p>•전익경 특제 240명 •경찰 행정학과 특제 100명 •경찰 특공대 특제 38명</p>
--------------------------------------------------------------------------------------------------	------------------------------------------------------------------------------------	-------------------------------------------------------------------------------------------------	-------------------------------------------------------------------------------

경 찰 전 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 226-5050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p>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p>	<p>2 모집인원: 각반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p>	<p>3 강의요일 및 시간: • 주간(매주 화요일) 14:00~16:00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p>	<p>4 교육기간: 2009년 3월 9일 ~ 6월 28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 (실습70%, 이론30%)</p>	<p>5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입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p>
-----------------------------------------------------------------------------------------	-----------------------------------------------------------------------------------	--------------------------------------------------------------------------------------	------------------------------------------------------------------------------	-------------------------------------------------------------------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매매들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상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건권을 추천합니다.

구권시설/현물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전지연발달	016-688-5951	주택/재개발	김진승이사	010-8838-0114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가	비고	소재지	명칭	평	용도/층	건평/가	비고	
임산물	대32,2963	4194원	1699년	5층 빌딩	대원동	이즈타워비더	35	15/1	194년	720년
화산물	대83,2174	3949원	195년	4층 상가	주월동	삼대코미널	32	8/2	194년	6년1년
광천동	대8,2221	5943원	397년	원룸 18세대	주월동	경원세네빌	32	9층	194년	82년6
신안동	대13,2989	2294원	592년	모텔, 숙박업	마북동	희광가	32	13/3	196년	82년9
운암동	대139,21959	1119원	62년	6층빌딩	관월동	봉림	32	20/12	193년	93년4
도산동	대179,21989	379원	16년	역시각	주월동	호빈비더타운	38	14/3	294년	197년
농성동	대71,21160	639원	44년	역시각	소태동	다이	84	16/9	2년	194년
궁동	대46,2233	8943원	397년	5층 학원	주월동	대원	22	5/5	429년	22년4
산기동	대86,2395	1397원	996년	5층빌딩	백운동	백운스카이	54	24/7	194년	82년1
우산동	대77,21481	679원	24년	지동서비스	월계동	건영	36	15/1	194년	62년7
오차동	대281,29231	7954원	393년	2층공장	중앙동	주월2차	32	14/14	194년	82년
농성동	대167,2686	289원	19년	7층빌딩	월계동	관안도차	32	14/7	1년	72년
연제동	대100,2317	9994원	394년	5층숙박업	유암동	대세빌딩	27	3/3	194년	42년1

구권시설/상가	대표이사	010-5878-0805	근린주택	박경원이사	010-2811-5598	공장/토지	이영환이사	010-3833-9011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가	비고		
운암동	대103,23305	1169원	41년	6층빌딩	소문동	대82,21367	6498년	4593년	7층빌딩
화산물	대109,2388	1794원	59년	6층빌딩	신안동	대105,2286	4916년	29년	3층빌딩
학동	대7	1943년	627년	근린상가	인동	대62,2105	2940년	194년	4층빌딩
봉성동	전용 81	2944년	193년	4층상가	용봉동	대82,2286	2945년	194년	3층근린주택
양동	대174,2424	1494원	892년	5층빌딩	내원동	대86,2250	2945년	194년	7층빌딩
우산동	대128,2314	7992년	394년	4층빌딩	계말동	대53,2156	3946년	2941년	4층근린주택
용봉동	대79,2397	799원	49년	근린상가	용암동	대66,2125	3946년	2941년	3층근린주택
학동	전용 83	3946년	193년	4층상가	용봉동	대128,2246	7946년	3941년	3층근린주택
중앙동	대176,2390	7946년	2942년	4층빌딩	용봉동	대53,2201	4947년	2946년	5층근린주택
용암동	대156,2973	199원	594년	7층빌딩	니주동	대34,2163	4942년	194년	3층근린주택
우산동	대22,248	199원	195년	근린상가	호성동	대89,2390	2946년	82년2	3층근린주택
대원동	대1,230	399원	194년	근린상가	인동	대52,2266	2945년	194년	3층근린주택
신안동	대13250	2946년	427년	근린상가	모차동	대89,2286	3946년	194년	3층근린주택